

군산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추진사항 점검회의 열고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 등 논의

시민이 함께 하는 자립도시 군산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사항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김임준 시장과 이승복 부시장을 비롯해 국소장및 협업부서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회의를 통해 김 시장은 긴급 상황보고를 받고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위한 비상저감 조치와 시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대응을 지시했다. 이어 해당부서 및 협업부서의 과장들은 부서별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철저히 분석해 보고했다.

먼저 시는 운행차의 이동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54억을 투입하고 추경예산에 17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노후 경유차 1,100대 폐차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117대를 보급해 친환경적 자동차 보급분화를 조성한다

는 계획이다. 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화물차 피염녹스(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지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지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군산시는 현재 운영 중인 대기오염측정소 3개소 이외에 4억7천 만원을 투입해 측정소 2개소를 신규로 설치, 운영하고 미세먼지 신호등 4개소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측정소 자료를 군산시 홍보전광판에 실시간 표출 한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화 된 방지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방지시설 교체 설치비로 1억원을 지원하고 대기배출사업장에 환경기술을 지원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사항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읍면동을 통해 배부하고 관내 경로당 507개소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했다.

이외에도 군산시는 도시숲 조성 및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도심벽면녹화 사업 추진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시는 다수가 모이는 승강장 주변 청소와 불법쓰레기 소각 상시 단

속과 야외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을 위해 방진마스크는 물론 안구보호용 안경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위한 비상저감 조치와 시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분쟁 해결 촉구 건의안 채택

군산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17회 임시회를 마감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임시회를 통해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점검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15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각 상임위원별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결정된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조2천333억5천200백만 원 보다 1천142억3천816만원(9.15%)이 증액된 1조2천475억9천만 원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는 읍면동 청사신축 추진계획 등 2건, 경제건설위원회는 거주지 골목상권 지원 사업 추진 관련 등 5건에 관한 지역 현안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종합적인 검토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열린 토론회를 벌였다. 또한 경제건설위원회는 지난 14일 산복중 장전·해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현장 등 4개소를 각각 방문해 추진사업에 대한 검토와 안전사고의 위험을 점검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해빙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관계자들에게 사전 예방대책마련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군산시 한부모가족지원 조례안,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거리에울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다음으로 21일 2차 본회의를 통해 군산시의회는 '사법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분쟁 해결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후 청와대,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 행정안전부, 중앙방쟁조정위원회에 송부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신영자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새만금사업법 개정에 따라 새만금사업이 공공 주도 매립으로 전환돼 새만금 개발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행정구역 결정이 필요한 새만금 매립지가 빠르게 늘어나

고 있다"며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행안부의 자치권 침해에 대한 판단을 내림과 동시에 명확한 기준으로 새만금 매립지역의 관할구역을 확정해 지자체 간 분쟁을 끝내주고 대법원은 해상경계선, 새만금 매립사업 추진 및 항만의 조성 및 이용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함께 3·4호 방조제 대법원 판결 이후의 사업변경사항 등을 반영해 판결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경구 의장은 "이번에 승인된 추경예산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익산시가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 소유의 건물이나 손해 발생 시 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배상공제와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에 가입하고 있다.

건물을 비롯해 집기비품, 기계설비 등 재해 발생 시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재해복구공제에 가입 중이다. 총 1202건의 영조물에 대해 배상공제 등록을 완료하고 시설 하자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국 최초 장애인 안전도시 시범사업 추진

응급 상황 사전 판단 전동보장구에 IT 단말기 장착 등

군산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장애인 안전도시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스마트 안전도시 실현을 위해 장애인 안전에 가장 필요한 '장애인 스마트안전도시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강임준 군산시장의 역점 사업중 하나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에 IT 단말기(지능형 단말기와

2D카메라)를 장착해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된 응급 상황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장착된 IT 단말기는 긴급 콜 기능과 블랙박스 기능이 있어 범죄 발생과 신체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행인, 관계센터, 긴급출동 인력에게 실시간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주관 업체인 (주)스타고어가 전동보장구에 적용되는 카메라, 긴급 콜

버튼, GPS 등 5종의 부속 장비를 시범기간 내에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장애인 단체 및 연합회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주홍 복지지원과장은 "사업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장애인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스마트 안전도시 군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 혁신성장 전략 이 책에 있다'

황진 군산시민정치포럼 상임대표 '골든타임' 출간

황진 군산시민정치포럼 상임대표가 군산 혁신성장 전략과 개인의 삶, 철학을 담은 자서전 '군산 골든타임'을 출간해 오는 23일 북콘서트 형식의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황 상임대표는 21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북콘서트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자서전 출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전했다.

황진 대표는 "현재 군산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서전을 통해 군산의 골든타임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풀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군산형 일자리와 관련 무엇보다 정치리더의 혁신적 마인드가 중요하다"며 "각계각층의 의견과 토론을 통해 시민적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황 대표는 "지엠 군산공장을 활용해 미래형 산업인 전기차 생산에 접근해야 하며 원화력 격차 해소 등 상생형 일자리를 통한 새로운 노동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다음으로 그는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관련, 군산의 지리적 여건 상 중국이 매우 중요한 변수"라며 "고군산군산과 원도심 근대거리-전북자원과 연결하는 관광전략이 필수적이다.

청주국제공항이 20년간 적자에서 벗어난 것도 중국관광객 유치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진 군산시민정치포럼 상임대표는 치과의사로,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과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장을 역임했다.



군산소방서가 전복도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버스 교육을 실시했다.

군산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현장대응 교육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가 21일 통제단원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버스 교육을 실시했다.

군산관내 화재 발생으로 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이 2회 운영됐으며 통제단원들이 현장지휘버스의 역할을 숙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자 이번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

현장지휘버스는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고 등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

하면서 도입이 추진돼 2018년 5월 19일 배치됐다.

현장통합지휘본부의 역할로 대형화재나 재난발생에 따른 통제단 가동시 현장지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에 투입된다.

구창덕 서장은 "지휘버스를 활용해 재난을 대비하고 신속한 재난정보 제공 등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전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평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